한국언론학보
2017년 61권 3호 87~118쪽
https://doi.org/10.20879/kjjcs.2017.61.3.003
http://www.comm.or.kr

소수자운동으로서의 기자단교육의 성과와 대안적 방향 모색

이주민의 목소리 내기 관점을 중심으로

정의철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MWTV(Migrant World TV)'는 2016년 기자단교육을 실시했다. 기자단교육은 교육과정과 교육 후의 방송 참여를 통해 이주민이 시민기자, 주민기자로서 취재와 기사쓰기, 의견 개시와 공유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기자단교육을 수료한 이주민과 선주민 및 MWTV 관계자와의 인터뷰와 현장관찰 및 대화를 통해 현상 묘사뿐 아니라 비판과 해석, 대안 제시에 비중을 두었다. 연구결과, 기자단교육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의 정체성과 문화, 이슈를 이해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5년 만에 재개된 MWTV의 5기 기자단교육은 전문화,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었고, '아래로부터(bottom up)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교육방식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10주 동안 매주 언론, 이주, 인권,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는 등 관심과 열기도 높았다. 이들은 교육과정과 교육 후 MWTV 웹진이나 홈페이지에 이주민 관련 이슈나 정책에 대해 뉴스나 칼럼을 게재하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거주지, 직업, 나이와 법적 지위, 출신국은 달랐지만 기자단교육과 이와 연계된 취재와 기사 게재를 통해 일종의 '디지털 공동체'와 '공론장'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 공동체를 통해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이슈들이 소통되고 있었다.

핵심어: 이주민 미디어, 기자단교육, 디지털공동체, 소수자 미디어

---

* clerk88@sangji.ac.kr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비영리적이고 참여적인 소수자 공동체의 미디어는 이주민에게 자기재현의 공간을 제공해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며(speaking in one's own voice), 정체성을 표출하게 한다(Sreberny, 2005). MWTV(Migrant World TV)는 "이주민이 만드는 방송, 이주민과 함께하는 방송"을 표방하고 있고, 이주민이 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자단교육은 이주민이 시민기자로서 취재와 기사 쓰기를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뉴스 제작 등 저널리즘 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주민 주체 미디어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체 미디어는 공동체내에서 소통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며 공동체의 '스토리텔러(storyteller)'이자 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실천의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 볼 수 있다(채영길 · 김용찬 · 백영민 · 김예란 · 김유정, 2016). MWTV는 이주민이 그들의 관점으로 스토리를 공유하며, 그들의 주장을 드러내며, 실천하는 이주민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지향한다. 한편, MWTV의 참여 주체의 성격과 제작 방식이 공동체적이지만 이주민 공동체의 약한 결속력, 열악한 재정,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의 불안정 등으로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채영길, 2013).

한국은 국가나 언론 등 '위로부터(top-down)'의 계몽에 의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고(이기형, 2008), 소수자의 권리보장이 미비하며, 이들의 정체성조차도 부인되고, 소수자의 자발적인 목소리나 소수자 운동도 취약한 실정이다(장미경, 2005). 또한, 국가나 주류 언론은 중립적이지 않고, 다수자나 지배계층의 이해를 지지하는 담론을 재생산하고, 전파한다. 다문화담론은 차별 반대와 인권보호를 위한 운동 진영의 문제제기로 등장했지만 정부에 의해 차용되면서 다문화가족을 '복지대상화'하여 관리하려는 통치 담론으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이주민 내부의 차이나 문화적 자존감이 무시되고 주변부 계급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김현미, 2015). 한편, 이주는 정치적 위기와 축적된 불평등으로 인해 더 나은 정치적 · 경제적 기회와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활용해 '연결된 이주민'은 그들의 정체성과 이슈를 표현하고, 삶의 개선을 주장하는 '주체'로서 변모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Hegde, 2016). 또한, 이주민들은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인적 연결망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도 초국적인 특성을 갖는 민족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이소영, 2014). 문화 간 불평등을 낳는 제도와 담론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 의하면, 이주민은 불평등과

인종주의, 가부장주의가 중첩된 환경에서 권력 체계를 통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소수자 운동을 통해 억압에 저항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권리를 실천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장유정 · 강진숙, 2015). 즉, 이주민은 대안적 미디어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다수자적 상징공간에 저항하고, 정치 · 문화과정에 참여하게 된다(Silverstone & Georgiou, 2005).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5년 12월 1,899,519명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다(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6, 8). 저임금 노동 선호와 3D업종 기피의 결과로 이주노동자의 이주가 가장 많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이주민의 유입이 그다음이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탈냉전과 세계화, 지역분쟁으로 인한 난민, 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적 변화로 인한 빈곤화와 불평등의 심화가 국제이주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엄한진, 2011, 48-49쪽).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은 '자국민' 중심의 권력 구조와 다수자 관점의 담론 지형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 내기' 운동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이슈를 드러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역동성에 초점을 두는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이주민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주체로 규정했다. 또한, 소수자 교육이 소수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이해하고, 변화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윤수종, 2008) MWTV가 실시한 기자단교육의 역할을 탐색했다. 이 연구는 기자단교육을 수료한 이주민과 선주민 및 MWTV 관계자와의 인터뷰와 현장관찰을 통해 교육 참여자의 동기와 경험을 이해하고, 이주민 기자단교육의 성과와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2. 이론적 배경

1) 이주와 다문화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20세기 후반은 '이주의 시대'로 불리고 있으며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사회에 정착된 규칙들이 새로운 '문화적 차이의 정치(politics of cultural difference)'와 문화적 요구들에 의해 도전받기도 한다(Kymlicka, 2005/2001). 킴리카(Kymlicka, 2005/2011)가 주장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공동체에 필요한 기본재의 생산과 분배의 책임이 국가에 있고 국가는 이를 정의롭게 실현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 관점을 따르면, 국가가 집단들의 특수성을 수렴하고, 법, 언론, 교육을 통해 다문화 제도가 실현되며, 구성원은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를 획득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Kymlicka, 2005/2011; 채영길, 2013 재인용).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를 춤, 음식, 축제 등 볼거리로 축소하기 때문에 '얕은 다문화주의(thin multiculturalism)'로도 불린다(엄한진, 2011).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성의 추구를 이상화하며 개인의 합리성을 낙관하는 반면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국가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채영길, 2013). 영미식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관용의 담론을 바탕으로 다양성의 전시에 치중하고, 이민자의 적응을 강조하면서 불평등, 인종주의, 배타적 관행, 외국인혐오, 식민주의 문제를 간과하고 국가통합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Mahtani, 2002; Nesbitt-Larking, 2008). 또한, 이 관점은 표면적인 문화적 차이를 부각하는 반면,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하는 역동성을 외면하면서 문화적 경계를 고정화하는 경향이 있다(Georgiou, 2005; Mahtani, 2002).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위치가 교육의 질, 직업, 권위와 영향력, 법적 지위의 차이를 낳는다고 보고, 억압, 지배, 주변화, 차별, 집단 간 차이를 사회적 산물로 간주한다(Glasser, Awad, & Kim, 2009). 이는 '깊은 다문화주의(deep multiculturalism)'로도 불리며 다양성 자체의 전시가 아니라 문화 간의 차별이나 불평등을 낳는 제도와 담론의 개선 및 사회변화에 초점을 둔다(엄한진, 2011).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평등하고 독립적인 권리와 자격을 갖는 공동체 구성원 간 또는 상이한 공동체 간에 대화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권리들이 실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적 다문화주의(채영길, 2013, 157쪽)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1]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다문화가족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국적'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잠재력이 계발되고 인간다운 문화 ·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정혜영, 2008)는 관점과도 관련된다. 비판적 · 저항적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갈등 없는, 합의된 현상으로 보지 않으며 다양성을 지배문화에 대한 비판과 사회정의의 실천 차원에서 이해하고 차이를 역사, 문화, 권력,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본다(이경희, 2015). 또한, 문화를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으로 보고, 문화 간 불평등을 낳는 제도와 담론의 변화를 지지하며, 이주민 등 소수자 공동체 내부와 공동체들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다양한 권리들이 획득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관점을 따르면, 혐오나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대항적 표현(counter-speech)'이 중요하며, 혐오표현이나 차별로 인해 위축된 소수자가 대항적 표

1) 공동체적 다문화주의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삶을 향유하기 위해 소통해야 하며, 상호주관적 소통을 통해 다른 권리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채영길, 2013).

현을 통해 맞서기가 어렵고, 자유롭고 공정한 발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를 통한 개입과 사회운동이 요구된다(홍성수, 2015).[2] 특히, 소수자들은 다수자만을 위한 담론에 반박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참여를 통한 목소리 내기 운동이 중요하다.

제1세대 권리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2세대 권리가 교육권, 주거권이라면, '커뮤니케이션 권리(the right to communicate)'는 제3세대의 권리이며 수용자 스스로 매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적영역에서 담론을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의 권리'를 뜻한다(원용진, 2011).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소수문화 공동체가 그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그들의 주장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권리는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와도 연결된다.[3] 한편,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의 등장은 이주민의 민족적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시민권의 개념도 재정의하고 있다(Hegde, 2016). 반면, 여전히 존재하는 소수자의 표현을 막거나 왜곡하는 주류사회의 관행과 담론으로 인해 소수자의 생활과 의사소통, 정체성이 침해될 수 있다(이소영, 2014). 킴리카(Kymlicka, 2005/2001)에 따르면 소수자 집단의 시민권은 제한되어 있으며 소수자 집단의 이해와 관점들이 청취되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Kymlicka, 2005/2001). 이는 소수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시민권은 공동체의 문화와 이슈를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로 확장된다. 이 결과, 이주민이 고향과 정착국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수용돼야 하며 공동체를 통해 이주민이 정체성을 획득하는 주체로 변모할 때 이들의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다(김진희 · 오윤호 · 이수안, 2009). 한편, 다문화 담론은 자문화 중심의 편협성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교류와 단일민족국가에서 '글로벌 다문화국가'로 확대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전형적인 국민되기'를 전제로 한다(김현미, 2015).[4] 이 결과

---

2) 혐오표현의 제한은 소수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조건하에서 정당화되며, 혐오표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소수자가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혐오표현으로 인한 소수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혐오표현이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소수자의 '반박하기(speaking back)'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홍성수, 2015).

3) 이주민의 시민권 증진을 위해서는 그들이 생활영역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래활동, 지역사회 활동, 정책과정 참여, 인터넷 등 미디어 활동이 요구된다(곽효문, 2013).

4) 다문화담론은 결혼이민자의 동화에 치중하며, 다문화 가족 내의 차이나 문화적 자존감을 무시하고, 다문화 가족 전체를 취약계층과 동일시해 주변부 계급으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김현미, 2015).

이주민은 왜곡된 재현과 위축된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환경에 처하게 되며 동시에 이러한 조건에 맞서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운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2) 소수자와 소수자 운동

소수자 또는 소수자 집단은 실질적인 정치 · 사회적 권력이 열세이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뜻한다(홍성수, 2015, 290쪽). 이 점에서 계급과는 다른 인종, 젠더, 성적지향, 출신지 등의 '차이'에 따른 구분인 정체성에 의해 소수자가 정의된다(윤수종, 2008). 한국에서는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에이즈 환자, 노숙자, 탈북민으로 호명되는 집단들이 그들이 가진 부분적 정체성으로 전체 정체성을 규정 당한다는 점에서 소수자로 간주될 수 있다(장미경, 2005; 장임숙, 2011). 이주민은 이주라는 부분적 정체성으로 전체 정체성을 규정당하며, 그들이 가진 다양성이 무시되고 '다문화' 또는 '이주민'으로 호명되면서 소수자의 위치를 갖게 된다. 미국에서도 주류미디어는 착한 시민과 '이민자 타인(the immigrant Other)'을 구별하고, 이민자와 관련된 관행이나 편견을 과장해 문화적 분열을 조장하며, 이민자를 소수자로 고정화한다(Hegde, 2016). 주류미디어가 주도하는 이분법적인 담론은 반(反)이민/반다문화 정서와 정책을 낳고, 이주민에게 소수자의 위치를 부여한다. 한편, 이주는 국제법상의 권리이자, 생존,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 불법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이동 및 거주하거나 국적을 가질 권리, 가족을 꾸릴 권리, 일할 권리,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실업, 빈곤 등으로부터의 탈출의 권리를 포괄한다(진경옥, 2016, 68쪽). 이러한 이주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주민 간은 물론, 선주민과의 연대를 구축하고,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운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소수자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 성인중심에서 청소년, 이성애자 중심에서 동성애자, 다문화 상황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이 될 수 있다(박상준, 2014). 특히, 문화적 소수자(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는 동질성을 갖는 지배집단으로부터 차별받고,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아져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개선이 어렵다(전영평, 2010). 이주민의 문화는 주류 담론에 의해 사적이고 종족의 영역으로 규정되면서 시민적 · 공공적 가치에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이주민이 축적해 온 정체성이 단순화되면서 이주민은 문화를 '정치화'하는 운동에 나서게 된다(김현미, 2015). 한편, 소수자들은 복수의 소수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이자 빈민촌에 사는 장

애인 할머니는 인종 · 민족 · 경제 · 연령적 차원의 소수자가 된다(이경희, 2015).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80: 강진숙 · 배민영, 2010, 257-258쪽 재인용)에 따르면 다수자가 남성-성인-백인-비장애인-이성애자라는 선분화된 질서에 따라 '-이다'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고정된 자명한 존재라면 소수자는 여성-어린이-흑인-장애인-동성애자라는 '선분'에 따라 '-되기'를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상의 존재이며 상상력과 행동을 통해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체이다. 소수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소수자 운동을 통해 차이를 차별화하는 표준적인 시선에 맞서며 자기정체성을 보여주고 자신의 공간을 만든다(윤수종, 2004; 이경희, 2015). 이주민은 문화적 소수자이자 정치경제적 권리에서도 소수자의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5] 특히, 이주민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면서 이들은 참여적이고 저항적인 주체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양극화, 사회갈등의 심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수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행정적 인식과 대응은 부족하다(전영평, 2008). 또한, 주류사회의 담론은 소수자 안의 다양성을 무시하며, 이민자의 경우 쓰고 버릴 수 있는 노동력이자 국가에 스트레스를 주는 근원 또는 공적 담론에서 배제된 일탈자로 묘사한다(Hegde, 2016). 주류미디어에 내재한 다수자 관점은 차별적 표현을 재생산하며(Husband, 2005) 이주민을 이국적이거나 위험한 존재로 '타자화(Othering)'한다(Sreberny, 2005). 이는 이주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의 부재와 연결되며, 일방향적인 다문화정책과도 관련된다. 다문화정책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부장주의에 근거해 국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만을 위한 선별적 정책 중심의 형식적 평등 단계에 있고 다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의 민주성도 부족하다(장임숙 2011).[6] 또한, 이주민 공동체와 주류사회 간의 수평적 소통이 아니라 온정적이고 일방향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자유주의적 분배의 결과로 볼 수 있다(채영길, 2013).[7]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소수자를 인지하

---

5) 문화적 소수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집단이며, 특히 인종, 종교, 가치관, 도덕률 등의 차이로 인하여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혼혈인, 이주민, 동성애자, 미혼모 등이 문화적 소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전영평, 2010).

6)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어교육, 한국음식/문화체험, 생활정보, 기술/보육교육이 중심이며, 구성원 전체를 위한 다문화민감성 교육은 부재하고, 전시성 행사의 중복 실시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김선미, 2011; 김원, 2011; 신의진 · 김영수, 2012).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과 교육은 이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배제하는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다(배현주, 2009).

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사고나 소수자를 관리 · 지도하겠다는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탈피하고(전영평, 2008) 이주민의 일상과 욕구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bottom up)' 이주민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미디어 활동이나 미디어교육과 연계한 이주민의 주체적인 목소리 내기 운동, 특히 이주민이 스스로 매체를 이용해 담론을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천하고 다른 권리들도 주장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3) 디지털 공동체와 이주민 미디어교육

이주민은 출신국/거주국을 포함해 초국적인 연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화를 전제로 한 통합 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현미, 2015).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흩어져 있는 공중과 그들의 출신 문화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적 정체성이 구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Morley, 2000). 즉,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연결성 덕분에 이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주민 공동체는 다양한 집단과 중층적인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신국, 언어, 계급, 젠더, 학력, 이주역사, 나이에 따른 권력관계도 존재한다(김선미, 2011; 박경환, 2008). 디아스포라들은 소수자로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그들의 '고향(homeland)'과 문화적 출신과 연결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Dahan & Sheffer, 2001),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초국적으로 확장하기도 한다(Ang, 1996). 공동체는 이성적인 소통행위의 장이기도 하지만 갈등 · 투쟁 · 협상에 의한 권력투쟁의 공간이기도 하며, 구성원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정치적인 실천을 도모하는 장이기도 하다(채영길 외, 2016). 이 점에서 이주민이 구성하는 공동체는 이주민 간, 이주민-주류사회 간의 소통 및 갈등, 협상이 전개되고 삶의 개선을 위한 실천이 모색되는 공간이다. 미디어를 통해 이주민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미디어 활동은 소수자 운동의 의미를 갖는다. 앤더슨(Anderson)이 주장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가 인쇄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이주민의 초국적 공동체을 구성하는 매개된 관행은 인터넷, 스마트폰, 스카이폰 등의 다양한 미디어들의 개입으로 구성되며(Hedge, p. 12), '초국적 이주 공간(transnational migration space)'과 네트워크의 구성을 이끈다(김현경, 2008).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원주민-이주민,

---

7) 이명박 정권 이후 이주민의 문화권을 위한 정책이 축소되었고 다문화 방송 정책에서도 상호소통 환경이 외면되었다(채영길, 2013).

내부인-외부인이라는 이분법적 경계가 해체되며, 다양한 형태의 연결과 토론, 개입과 실천, 운동이 진행된다(Hegde, 2016). 특히,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통해 이주민은 새로운 이주민과 선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를 발견하고 연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주민들의 미디어 이용환경을 보면, 먼저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과 주거환경으로 미디어 이용이 쉽지 않고(정의철, 2014), 지속적으로 미디어교육을 받기도 어렵다(강진숙 · 이은비, 2010). 이주노동자는 제한된 정보 접근권, 공동체 조직의 미비, 이주국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매개적 소통을 위한 물질적 기반의 부실로 인해 취약한 미디어 환경에 직면해 있다(채영길, 2013).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수자 미디어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상호작용성이 높은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소수자 미디어는 주류사회의 고정관념적 재현에 도전하며 주변화된 그룹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Georgiou, 2005). 또한, 소수자 미디어는 주류미디어가 외면하는 계층의 관점과 문화가 표현되는 '다면적 공론장'이자(Cunningham, 2001), 헤게모니적 의미구조에 맞서 '반헤게모니적인 관점(counter hegemonic ways of seeing)'을 전파하고(Sreberny, 2005), 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대화 공간' 또는 '담론의 공동체(a new speaking space or discursive community)'의 역할을 한다(Mitra, 2004). 이러한 대화와 담론의 공동체로서의 소수자 미디어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표출되는 자기재현과 대안적 공론장의 역할도 수행한다(Sreberny, 2005). 한편, 소수자 미디어교육은 네트워크형 운동이며, 상호관계를 조율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을 배운다는 점에서 운동의 형식을 가지며, '함께 배우기'와 '서로 달라지기'가 기본이다(윤수종, 2008). 특히,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형식'의 미디어교육을 통해 다양성이 전시의 대상이나 구경거리가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수용될 수 있다(원진숙 외, 2010).

소수자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 내용을 비판하는 리터러시 능력과 제작기술을 습득하고(강진숙 · 박지혜, 2015) 그들의 욕구와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이은비 · 강진숙, 2013). 노인 미디어교육은 노인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창의적 사유와 욕망을 생성하는 주체로 간주하며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차이와 생성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강진숙 · 배민영, 2010), 청소년 미디어교육은 청소년이 소수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실천적 되기의 과정으로서 기성세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탈영토화'와 저항의 장이 되었다(강진숙 · 박지혜, 2015, 136쪽).[8] MWTV의 미디어교육에서 이주민은 제작을 통해 모국과 거주국의 경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변모했고(강진숙 · 이은비, 2010),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취재 ·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연대의 체험을 했다

(정의철, 2015). 이주민은 교육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디어활동을 함으로써 '비가시적인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정성진, 2010). 이주민 미디어교육에서는 위계나 훈육이 아닌 수평적 소통을 통해 이론과 제작을 배우며(이은비 · 강진숙, 2013), 상호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 이주민은 재현의 대상에서 상징생산의 주체로 변모하는 '문화적 권력관계의 역전'(윤재희 · 유향선, 2009)을 경험하게 된다. 즉, 이주민은 교육과정과 교육 후 뉴스 쓰기와 공유를 통해 정체성과 이슈의 표현의 주체이자 사회변화의 실천자 역할을 하게 된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 말하는(speaking from below)" 기법을 바탕으로 이주민을 연구의 참여자이자 사회변화의 주체로 간주했으며(서덕희, 2012; 엄한진, 2011; Dutta, 2006), 연구자는 분석에 따라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되는 담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섰다(이용승, 2016). 비판적 연구 전통에 따라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으며(Dutta, 2006), 소수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권리 중심적(right-based)' 접근법을 채택했다(조병희, 2008). 이 연구는 세 가지 연구방법들을 결합했다. 즉, 기자단교육과 창립기념모임, 라디오제작교육, 관련 모임에 대한 관찰, 교육 수료자와 MWTV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기자단교육 등에 대한 직접 참여경험을 종합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기와 장소, 사람의 상호작용에 따른 다양한 자료들(문헌, 인터뷰, 교육내용, 대화, 토크쇼, 사진 등)을 수집하는 '자료원 삼각검증법(data triangulation)'과 여러 방법들을 비교하는 '방법론 삼각검증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9]을 통해(강진숙, 2016)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다문화연구에서는 '타자로서의 거리두기'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표면적인 분석에 치중하는 연구가 다수이고(이창호, 2012) 연구가 다름과 구별의 고착화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를 강조하면서 생존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문화에

8) 탈영토화는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배적 가치체계에 반하는 행위로 나타나며 기존의 질서체계에 편입하게 되는 재영토화로 이어지기도 하며 소수자 되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강진숙 · 박지혜, 2015).

9) 덴진(Denzin, 1978: 강진숙, 2016 재인용)에 따르면, 삼각검증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은 하나의 연구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검증방법이다.

표 1. 인터뷰 참가자

이름	직책	국적	젠더	한국거주기간
A	이주노동자/전직 기자	네팔	남	5년
B	결혼이주여성/외국인대표자 회의 대표/다문화언어강사	중국동포	여	14년
C	주부	한국	여	
D	웹진 편집장/상근자	한국	남	
E	이주노동자/MWTV 외국인 대표	네팔	남	11년
F	MWTV 한국인 대표	한국	여	
G	MWTV 사무국장/상근자	한국	남	
H	결혼이주여성/인천시청블로그기자단 기자	일본	여	18년

내재된 정치화된 주제들이 배제되기도 하며 한국적 현실에 대한 감수성과 적실성이 부족한 면도 있다(김혜순, 2008). 이 연구는 지속적인 관찰과 참여를 통해 이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이주민의 기자단교육 참가 동기와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주민 기자단교육은 소수자 운동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연구문제 3. 이주민 기자단교육의 문제와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인터뷰와 관찰을 함께하면 불평등을 겪는 집단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Cheong, 2007). 특히, 참여관찰은 소수자 활동의 참여자이자 관찰자임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대화는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라포(rapport)' 형성을 돕는다(윤택림, 2013).[10] 이 연구는 인터뷰와 참여관찰, 자연스러운 대화방식을 함께 수행했고, 이주민을 사회변화를 위한 연구의 참여자이자 동반자로 간주했다. 아래는 인터뷰 참가자들이다.

기자단교육을 수료한 이주민 2명과 선주민 1명(A, 네팔 출신, 남, 5년 거주/B, 중국동포, 여, 14년 거주/C, 선주민, 여), 기자단교육을 준비한 MWTV 웹진편집장(D, 여)이 참여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자를 포함한 다섯 명이 참여한 인터뷰의 시작 전 웹진편집장과 연구자가 인터뷰의 의미를 설명했고 연구목적에만 활용됨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

10) 인터뷰를 연구자와 인터뷰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된 결과물로 간주했다(윤택림, 2013).

후 인터뷰를 녹취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 시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인터뷰를 했다. MWTV 창립기념으로 열린 "2016년 이주민방송 돌아보기 토크쇼"도 관찰하고 녹취했으며 토크쇼에 출연한 B와 MWTV의 한국인대표(F, 여)와 일본인 미디어 활동가(H, 여, 18년 거주), 웹진편집장의 언급을 분석해 연구결과 해석에 활용했다. MWTV의 한국인대표, 웹진편집장, 사무국장(G, 남)과는 2016년 10월에 MWTV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고 자연스러운 대화도 나누었다. MWTV 외국인대표인 네팔 출신의 E(남, 11년 거주)와 H와는 MWTV 관련 회의와 모임들에서 대화를 자주 나누었고 이메일 인터뷰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편하게 느끼는 MWTV를 통해 인터뷰를 조직했다. 네팔출신의 A와는 영어로 대화했고 면 대 면 인터뷰도 실시했다. 라디오제작교육 공개방송(8월21일), '동아시아국제포럼, 초국적 시대, 이주민 영화의 가능성'(10월 22일), 기자단교육인 '탐사보도 기획에서 제작까지'(11월 5일), 창립기념모임'(12월 17일)에 참여하고, 관찰했다. 특히, 동아시아국제포럼과 기자단교육에는 진행자로 직접 참여해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었다.

4. 연구결과 논의와 해석

이주는 단순한 신체 이동이 아니라 권력과 담론의 억압과 통제 및 이에 대한 저항과 협상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지점이며 뉴스나 콘텐츠 등 상징이 유통되는 매개된 공간이기도 하다(Hedge, 2016). 이 점을 고려하면 이주민 기자단교육은 이주민이 그들의 근심과 욕망을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관계를 구성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관찰, 인터뷰, 대화, 문헌조사를 결합해 두터운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11)]

1) 기자단교육 참여 동기와 경험

기자단교육은 영상제작, 라디오방송, 라디오제작교육, 이주민영화제와 함께 MWTV의 핵심 활동으로 2008년 1기 기자단교육이 처음 시작됐다. 2011년 4기 교육 후 중단됐다가 2016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만드는 이주민방송 주민기자단 5기 모집'으로 재개되었다.[12)]

---

11) 이 연구는 인터뷰와 관찰 결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MWTV의 기자단교육 참여자에 대한 조사와 MWTV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기자단 교육 자체평가 결과도 분석대상으로 활용했다.

12) 5기 기자단교육에는 이주민 4명, 선주민 4명이 수료했다.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A는 기자단교육을 수료했다. 그는 네팔에서 5년여 라디오 '뉴스진행자(news reader)'로 근무했고 한국에 온 지 4년 되었다. 그는 한국에 네팔 출신이 30,500여 명 있다고 말했고, 한국 입국 후 3개월 후부터 라디오는 스카이프(skype)와 네팔11라디오(www.nepal11.com)를 통해, 영상은 Wave TV(onlinewavetv.com: 비디오 뉴스/인터뷰/음악)와 네팔리코리아(nepalikorea.com: 온라인 텍스트뉴스)를 통해 스스로 방송을 했다고 한다. 2017년 1월 현재 'air voice radio(전 세계의 네팔인을 연결하는 라디오방송)'로 매주 한 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다. 네팔기자협회한국지부에서 사무처장을 하면서 네팔관련 포털도 운영하고 있었고 일인 방송을 통해 이주노동자인 본인과 주변의 이야기를 뉴스로 전하고 네팔 공동체의 음악, 문화행사들도 내보내고 있었다. A는 이주와 관련한 문제 등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고 저널리즘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래와 같이 기자단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 이주민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근심과 의견을 알리기 위해 기자단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람이 크다. (A, 네팔 출신/이주노동자)

MWTV에서 '한일짜장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인 H는 기자단교육을 수료하지는 않았지만 이주민 자조 단체로부터 미디어교육을 받았으며, 인천시의 4기 블로그 기자단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와 같이 이주민 기자단교육의 의미를 설명했다.

> 우리 이주민들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소수자=사회적 약자가 아닌 새로운 시민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가 많아지기만 해도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H, 일본 출신/결혼이주여성)

A와 H의 언급을 보면, 이주민이 소수자로서 의견을 전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자단교육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주민의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기자단교육의 참여 동기로 해석된다. 중국동포인 결혼이주여성 B는 기자단교육을 수료했고, 현재 초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이자 다문화교육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다. B는 초점집단인터뷰와 창립기념 토크쇼에서 아래와 같

이 말했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자단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자단교육을 통해 나의 목소리를 내고 언론의 힘을 실감했고, 내 목소리를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 예전엔 인권을 몰랐지만 이제 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목소리를 내야 상대방이 알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부천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주민 행사와 다문화교육 전공(석사)자와 다문화언어 강사로 바라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주민의 목소리로 기사화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B, 중국 동포/결혼이주여성)

B의 언급을 보면 기자단교육이 취재방법뿐 아니라 인권과 소통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는 장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인 A, B, H의 경험을 종합하면, 이주민들은 기자단교육을 통해 지역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점을 알리고 싶어 했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문제에 대해 소통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기자단교육은 매주 토요일 세 시간 씩 열 번의 워크숍(강의+기획회의)과 취재활동, 홈페이지나 웹진, SNS를 통한 기사 게재로 이루어졌다. 이주민과 선주민 언론인이나 미디어 활동가들이 강사로 참여했고 이주와 인권, 현장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웹진(The VOM: Voice of Migrant) 편집장인 D는 선주민으로서 MWTV에 2015년부터 참여했는데 처음엔 이주의 역사나 배경에 대해 잘 몰랐고 생소한 용어도 많았다고 한다. D는 이주민들이 다양한 참여 동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자단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 이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기자단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웹진에 글을 쓰기도 했다. 처음부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했다. 미디어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방송 제작자가 교육을 실시했다. (D, MWTV 웹진편집장)

기자단교육은 언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소수자 운동이자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주민 미디어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해 기자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래는 이주노동자인 A와 MWTV의 외국인대표인 네팔출신인 E의 의견이다.

> 이주민이 한국에 살면서 필요한 법적지위나 정책에 관한 정보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으

면 공유될 수 없다. 이 점에서 기자단교육이 중요하다. 다른 언어, 스타일의 사람과 다른 공동체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의 성격이나 습관도 알게 되었다. (A, 네팔 출신/이주노동자)

이주민방송은 이주민 본인 목소리를 스스로 한국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6 기자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2016년 기자단 교육에 많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 지원을 했다. 이것이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 네팔출신/MWTV 외국인대표)

A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다면 이주민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나 이주정책이 공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는 기자단교육을 통해 다른 공동체들을 알게 되고 한국인과 함께한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기자단교육이 이주민 공동체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내부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연대의 폭을 넓힘은 물론 선주민과도 소통하는 장이 됨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내 외부에 걸쳐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주관적 소통을 함으로써 다른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다(채영길, 2013)는 점과도 연결된다. 창립기념 토크쇼에서 한국인대표 F는 아래와 같이 기자단교육을 평가했다. F는 라디오제작교육을 수료했고 MWFM의 정규 프로그램인 “인류학자의 여행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웹메거진 The VOM이 만들어져서 행복했다. 이주민 당사사의 목소리를 담는 텍스트가 많지 않았는데, 텍스트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주 오마이뉴스’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더 많은 이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F, MWTV 한국인 대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융합은 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 점에서 방송으로 출발한 MWTV가 인터넷 기반 신문이나 매거진의 역할도 수행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관찰과 인터뷰에 의하면, MWTV는 2010년경부터 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영화제 개최, 영상 업로드, 음악/토크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 등에 치중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민 주체 미디어로 출발한 MWTV의 목적에서 일정부분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런 상황에서 기자단교육이 뉴스 제작을 통한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재개되었다고 해석된다.

이주민방송 창립기념 토크쇼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 한 해 동안의 MWTV 활동과 기자단교육, 라디오제작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과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었고,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되었다(그림 1 참조). 관찰과 녹취 분석 결과, 기자단교육이 이주민에게는 그들의 경험과 기억, 감정이 공유되는 장이 되고 있었다. 즉, 취재나 제작 기술, 언론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주와 인권,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를 알게 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B는 토크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대표자회의 구성을 이끈 경험을 아래와 같이 공유했다. 이는 페이스북 등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상징 생산과 정보교환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주민의 권리가 실천되는 장이 됨을 암시한다.

> 서울만 있던 외국인대표자회의가 부천에서도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안했더니 부천에서도 외국인대표자회의가 바로 만들어 졌다. 지금 부천시장님과 페이스북 친구이다.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B, 중국 동포/결혼이주여성)

MWTV 관계자들은 기자단교육을 웹진과 연계해서 역할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국어 뉴스' 같은 정규 뉴스 방송이 중단된 상황에서 웹진이 저널리즘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주노동자인 A는 웹진기사뿐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해 MWTV를 통해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한 후 숙소에서 일인 방송을 하면서 이주민의 목소리 내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향후 웹진뿐 아니라 라디오와 영상을 통한 뉴스기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2) 기자단교육의 의미: 이주민 공동체와 공론장

A는 네팔공동체를 위해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직접 하고 있었는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는 네팔 출신들이 그의 방송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디지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성한 사례로 해석된다. 헥데(Hedge, 2016)는 디지털 디아스포라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체를 형성한 경우로 정의했다. A는 초점집단인터뷰 후에 개별인터뷰 형식으로도 다시 만났다. 아래는 A의 의견이다.

> 좋은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중요하다. 네팔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이나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공장장 같은 관리자로 승진한 경우도 좋은 뉴스로서 직접 보도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두 명의 네팔 출신들이 경찰이 되었고, 이러한 좋은 뉴스를 발굴해서 뉴스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A, 네팔 출신/이주노동자)

A의 주장은 부정적인 사건사고 위주로 뉴스를 구성하는 주류미디어의 관행에 대응해 이주민에 관한 좋은 뉴스를 발굴하고, 고정관념에 근거한 주류담론에 대한 반박의 권리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기자단교육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한다. B는 부천 원미동 마을기자단으로 활동했으며, 이주민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B는 중도입국자녀들이 차별 없이 인권과 복지를 보장받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고학력의 이주여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으며, 다문화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회성, 전시성의 다문화정책이나 복장이나 음식 등 이국적인 면에 치중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출했다. 그녀는 한국인들도 참여하는 다문화행사나 교육이 필요하며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는 라디오 제작교육에도 참여했으며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해 구성한 부천외국인대표자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A와 B는 전시성, 시혜성의 다문화정책과 행사에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주민의 진정한 욕구와 의견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사를 쓰고 싶어 했다. 이 점에서 기자단교육이 동화주의적 다문화 담론과 정책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목소리 내기 운동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들은 웹진에 기사도 쓰고, 이주민 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정보교류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각지의 디아스포라와 교류하면서 '초국적 이주 공간(김현경, 2008)'과 '디아스포라적 연결망(Hedge, 2016)'을 구축하고 있었다.

선주민인 C(여)는 교통방송/KTV 시민기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초점집단 인터뷰 내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기자단교육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회이며 다양한 것을 느끼고 기사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는 교육 전에는 이주민, 선주민 등 다문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자주 만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는 이주민 공동체가 그들만의 울타리가 있으며, 다문화정책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며, 이에 대해 섭섭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시혜성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일부의 반감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향후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 강화로 변화해야 함을 암시한다. C는 이주민이 특혜를 받는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는 '다문화'라는 규정과 호명이 부르디외(Bourdieu, 1998)가 주장한 '구별짓기'라는 상징권력의 행사이며, 이 결과 선주민이 막연하게 이주민이 특혜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C는 기자단교육을 통해 이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아래는 웹진편집장의 의견이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했는데 라디오나 방송과 달리 글을 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방법이 어려웠다. 글쓰기 공부가 중요한지, 이주이슈 공부가 중요한지 쉽지 않았지만 이주 이슈에 주목했으며, 이주에 대한 문제, 기자에 대한 소양, 인권에 대한 문제에 주목해서 다큐멘터리, 1인 미디어 감독을 모시고 언론에 대한 것들을 배웠다. (D, MWTV 웹진편집장)

위의 의견처럼 이주, 인권, 언론이라는 큰 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취재와 글쓰기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주민 교육에서는 이주민을 구별해 대상화하기보다는 주류와 같은 범주의 정책대상이자 주체로 간주하는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이 요구된다(이용승, 2016). 관찰에 의하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기자단교육을 통해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와 관련한 이슈들을 알게 되고 소통하고 있었다. 11월 5일 아홉 번째 기자단교육인 〈탐사보도: 기획에서 제작까지〉에 진행자로 참여했다. 이날은 기자단교육에 참여해 온 이주민과 선주민뿐 아니라 다른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가족단위의 이주민 참여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연구자는 강사였던 뉴스타파 기자와 2시간여 대담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교육의 참여자로서 기자단교육을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이주민과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중재하면서 이주민들이 갖는 언론에 대한 관심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참여적 연구과정을 통해 기자단교육의 의미를 숙고할 수 있었다. 이날 강사는 기획취재 방법은 물론 세월호 참사 취재와 정치권과 재벌의 비리 취재 경험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탐사 · 기획보도의 사례와 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 이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주민 참석자들은 대안 매체 격인 뉴스타파의 활동과 탐사보도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질문도 했다. 한 이주여성은 주류언론이 이주민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보도하는지를 질문했다. 이는 이주민도 한국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류언론이 이주민의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교육 진행자로서 체험한 결과 이주민이 언론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과 기자단교육 자체가 만남과 교류의 장이며 이주민 공동체의 외연이 확대되는 기회임을 알 수 있었다.

MWTV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내기'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2004년 12월 출범했으며 월 2회 80분 씩 '다국어이주노동자뉴스'를 2011년까지, 월 1회 60분의 '이주노동자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2009년까지 시민방송 RTV와 인터넷을 통해 송출했고 기자단교육도 4기까지 진행했다(정성진, 2010). 공동체 미디어나 소수자에 관심이 적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을 제작 · 송출하던 RTV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MWTV의 활동은 위축되었다. 이는 이주민 미디어가 소수자 운동으로서 정치

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침했다는 점과 다국어 뉴스 등 저널리즘 역할이 위축 된 배경을 보여준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의견이다.

> 다국어뉴스와 이주노동자의 세상(다큐멘터리)은 각각 2012년, 2009년쯤 중단되었다. 과거에는 시민채널을 플랫폼으로 활용했고, 노무현 정권 때는 6개의 공동체라디오(성서FM, 관악FM 등)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지원이 줄어서 5개만 있다. 현재는 현장취재나 인터뷰 등을 편집해서 TV 방송을 하고 있다. (G, MWTV 사무국장)

사무국장인 G는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MWTV는 140여명의 후원회원의 후원과 서울시나 정부의 프로젝트를 응모해서 받는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WTV 운영진이 2014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사업에 적극 응모하면서 재도약의 계기를 갖게 된 것도 기자단교육 재개의 배경이다. 한국인대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등장으로 MWTV의 풀뿌리 미디어로의 잠재력이 커짐을 강조했다.

> 페이스북, 밴드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 전달 수단이 생겨서, 예전처럼 채널이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라디오와 웹진의 역할이다. (F, MWTV 한국인대표)

미디어 기술은 초국적인 연결과 소통, 문화적 표현을 통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는 A의 설명이다.

> 'air voice radio'는 전 세계에 사는 네팔인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라디오방송으로 네팔에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뉴스와 음악을 내보내고 있다. (A, 네팔 출신/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며, 억압에 저항하고 다양성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주체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며(이소영, 2014)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 각지의 디아스포라들이 미디어를 통해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재구성하고 능동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전통적인 대중 미디어와는 달리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동화의 수단이 아니라 이주민의 초국적인 공동체 활동과 연대를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다.

웹진편집장의 경험에 따르면, 선주민도 기자단교육과 이주민 이슈의 취재를 통해 이주와 난민,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취재는 단순히 타인의 이슈를 알아보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이슈, 역사에 대해 알게 되고 상호인정하며 상호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 웹진편집장으로서 매주 한 차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이주민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래터가 나갔는데 이 중 한 꼭지는 직접 취재한다. 시리아 유학생 압둘라씨에 대한 취재. 헬프 시리아 단체 만든 사람 취재. 역사나 배경지식이 부족했다. 사는 지역에서 사촌동생이 정부군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자로서 해결할 수 없고 듣기만 하고 받아 적는 일이 미안했고, 알려야 하는 문제인데 인력 부족으로 다 알리지 못했다. (D, MWTV 웹진편집장)

3) 기자단교육 평가와 대안 모색

인터뷰와 관찰에 따르면, 기자단교육은 이주민 간의 이해와 연대, 이주민-선주민 간의 소통, 그리고 불공정한 재현에 대한 반박의 장이 되고 있었다. 교육 참가자 대상의 조사에서도 기자단교육에서 좋았던 점으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자리", "기자단 교육을 통해 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됨"등이, 아쉬운 점으로는 "기사 쓰는 방법을 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음," "계속 정보 공유할 수 있게 주기적인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음"등이 제시되었다. MWTV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보면, "강의 위주이고 제작 실습이나 팀 작업이 부족하다보니 결속도가 떨어졌음", "수료자에게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할 장치 마련(명함 제작, 명예기자단 등), "단기집중교육으로 제작실습(글쓰기, 촬영)을 해서 수료증을 준 후 기자단 월례모임으로의 정례화"등이 제안되었다. 아래는 웹진편집장의 평가이다.

> 기사 취재/작성에 고급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보니 선주민에게 의존해야 하는 점이 아쉬웠고, 초보적인 기사 작성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병행하기 어려웠다. 이주민이 기사 쓰는 법에 대해 차분히 공부하고 싶어 했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 (D, MWTV 웹진편집장)

인터뷰와 관찰을 종합하면, 기자단교육을 통해 각자가 기획, 취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부족할 때는 '팀웍(team work)'으로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소수자 미디어의 특성상 기획, 취재, 제작, 송출, 게재 등의 모든 과정을 익히도록 교육하고 있었다.

자율적인 팀웍 중심으로 교육하고 이들이 생산한 기사들을 게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상호소통과 관계 맺기에 근거한 소수자교육(윤수종, 2008)의 특성이기도 하다. 네팔 출신의 A는 강의실을 벗어나 "한국의 언론을 더 알고 싶고, 한국 언론사 견학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취재/뉴스 제작 방법을 더 배우고 싶어 했다. MWTV 한국인대표는 지부를 만들어 지역에서 기자단교육을 실시해 이주민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MWTV의 외국인대표는 아래와 같이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강의를 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좀 더 사람 냄새나는 방송을 제안했다. 이는 이주민 공동체가 법적 지위, 출신국, 언어, 직업,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 현재까지 기자단교육 또는 미디어교육이 한국어로만 진행 되어 왔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이주민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 하고 싶어도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인재를 키워 모국어로 강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 쉽게 이주민 방송을 접하고 사람 냄새나는 방송이 된다면 좋겠다. (E, 네팔출신/MWTV 외국인대표)

과거 MWTV의 뉴스가 다국어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자단교육도 다국어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웹진을 다국어로 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위의 의견은 소수자교육이 함께 배우면서 다양한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윤수종, 2004, 2008)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의 입장에서 더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 한국어가 부족한 A는 대화에 참여를 거의 못했다. 기자단교육은 방송에 비해 글쓰기와 언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주민의 경우 언어적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A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기자단교육 방법에 대해 MWTV 내, 외부 미디어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더 숙고해야 함을 암시한다. 아래는 A의 언급이다.

> 기자단교육 수업에서 단지 한국어만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 영어로도 함께 설명해 주면 좋겠다. (A, 네팔 출신/이주노동자)

한국에 18년 거주한 H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모두 바쁜 일상으로 인해 혜택도 없는 미디어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 혜택을 준다면 이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주안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교육, 라디오교육에 참여했지만 이걸 더 발전하기 위해선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잘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봉사적으로 한다면 방송했던 시간만큼 봉사점수라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디오방송에 참여하는 것도 다문화가정이 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커뮤니티에 공헌한 일로 인정해주고 연금제도에 반영하거나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민 발전기금 같은데 기여하면 연금에 반영하거나(미국의 기부연금과 비슷)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연동시킬 것이 희망적일 거 같다. (H, 일본 출신/결혼이주여성)

웹진은 6월10일 창간준비호와 7월 11일 1호(커버스토리: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후 매 달 발행되고 있다. 웹진은 외부 필진과 MWTV 운영위원 등 내부 필진, 기자단교육을 수강하는 이주민 필진의 참여 속에 발행되고 있었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들이 칼럼과 기사의 형식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의하면, 웹진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기자나 칼럼니스트로 참여하는 디지털화된 신문이자 온라인 메거진의 형식을 띄고 있었고 이주민의 이슈와 활동을 공론화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특히, 웹진이 이주민의 참여 속에 정규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주민이 소통의 주체로 변모하고 있었다. 웹진편집장 D는 기자단교육 수료 후에도 취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민기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주민 미디어에 걸맞게 웹진에 이주민이 작성한 기사들이 더 많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교육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MWTV가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에 다가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2017년 1월 개최된 MWTV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면, 웹진을 한국의 이주 문제뿐 아니라 재외동포와 귀환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해서도 다루는 웹메거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이는 다문화적 소통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부터 웹진을 기획, 평가하는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발간위원회를 만들고 온라인 소통방을 구성해서 웹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난민, 귀환이주노동자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려 한다. (MWTV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자단을 무보수 자원활동가를 원칙으로 하되 취재활동비를 제공

하고 1박2일 기자스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기자용 게시판을 만들어 공유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더 많은 이주민들이 시민기자가 되고 저널리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기자단교육이 하겠다고 밝혔다. 웹진을 기획, 평가하는 전문가 발간위원회 구성, 필진들의 소통방 구성은 MWTV 내, 외부의 역량을 조직화해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7년 2월 정기총회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뉴스를 텍스트 기사형식뿐 아니라 영상, 사진, 모바일 등을 활용해 작성하고, (스마트)영상 기자단을 모집해 시민 기자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MWTV가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등 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실시간으로 정부규탄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촛불집회와 성명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내외 네티즌들은 정유라의 은신처를 추적하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는 거주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이슈를 드러내고, 공유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특성과 참여적 공동체로서의 속성이 잘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 이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각지의 디아스포라와 연결되며, 정치 · 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이슈를 표현하고 있었다.

외국인대표 E는 이주노동자이면서 미디어 활동가이며 기자단교육 강사이고 네팔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래는 E의 의견이다.

> 2016년에 이주민방송 MWTV 의 활발한 활동이 아주 좋았다. 하지만 아직도 MWTV에 대해 모르는 이주민들이 너무 많다. 우리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찾아오고, 기자단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더 선전과 이주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E, 네팔출신/MWTV 외국인대표)

H는 인천시청블로그기자단 활동을 4년여 해왔는데 블로그기자단에 이주민이 혼자라는 점이 아쉬웠고 지역에서 이주민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청블로그에서 주로 관광위주로 기사가 작성되는데 이주민의 일상이나 이주와 관련된 이슈들을 더 다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더 많은 이주민 기자들이 배출되고 이들이 관광이나 음식 등 가벼운 주제만이 아니라 이주, 인권, 복지와 이주민의 일상의

이슈들을 더 다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수집단의 음식, 풍습, 축제에 집중하는 '문화관광식 교육' 또는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나 한국문화이해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의 상호이해 과정이 동반되면서 모두가 편견과 고정관념,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성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모경환 · 임정수, 2011). 이 점에서 기자단교육은 이주와 관련된 인권, 복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문화 간 교육과 상호작용의 공간이 되어야 하겠다.

5. 결론과 제언

소수문화 공동체 구성원이 정책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이주민 기자단교육을 통해 이주민의 공동체와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이 결과 한국인 엘리트나 이주민 스타 중심이 아니라 이주민의 참여 속에서 이주민 간, 이주민-선주민 간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비판적 연구의 전통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사회변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 근거했다. 이주민 주체 미디어의 원래 목적이 이주민을 위한 뉴스의 생산과 공유를 통한 이주민 공동체의 강화라는 점에서 이주민 기자단교육에 대한 연구의 함의가 크다고 하겠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참여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동체는 공간과 관계의 공유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며, 지리적으로 획정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채영길 외, 2016). 이 연구결과에서도 국적, 인종, 언어, 거주지, 젠더, 직업이 다른 기자단교육 참가자들과 교육을 준비한 MWTV 관계자들이 만남과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토론하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동화 이데올로기와 주류미디어의 재현의 영향으로 이주민은 한국사회가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로 재현되며 스스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적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압력을 받는다(김현미, 2015). 또한, 이주민을 '다문화'로 호명하고 분리하는 정책이나 동화주의적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을 정체시키고 반다문화 정서를 낳을 수 있다(이용승, 2016).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단교육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주민의 다양한 정체성과 권리들이 표출되고 실천을 모색하는 공론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기자단교육에 대한 이주민의 참여 동기와 경험에 관한 질문이다. 기자단교육은 10주 동안 매주 언론, 이주,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현장에는 취재에 필요한 장비와 회의실, 편집실을 갖추고 있었다. 참여한 이주민들이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는 등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취재비 제도도 있었고 취재 후 MWTV 웹진이나 홈페이지에 이주민 관련 이슈나 정책에 대한 뉴스나 칼럼을 게재하고 있었다. 강사로는 주류언론의 제작자나 주류언론 출신의 대안매체 언론인(KBS, 민중의 소리, 뉴스타파 등)과 독립영화 감독, 인권이나 이주민 운동 관계자와 함께 미디어와 영화 운동을 하는 이주노동자 두 명도 강사로 참여했다. 기자단교육, 라디오제작교육과 공개방송, 창립모임, 총회 등을 관찰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 결과 실제 취재활동과의 연계,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한 교육 내용 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수자 미디어인 MWTV가 소수자 운동의 관점에서 기자단교육을 주도했고 교육과정에서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이슈를 표현하고 있었다. MWTV의 한국인 관계자들도 교육을 통해 이주민과 수평적 관계 맺기와 서로 달라지기의 경험을 체험하고 있었다. 한편, 기자단교육은 MWTV의 저널리즘 역할이 약해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맥락도 갖고 있었다. 즉, 이주민 주체 미디어는 이주민 스스로 뉴스를 제작 ·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주창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 취재방법, 기자작성 등 저널리즘 교육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이주민 기자단교육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교육 참가자 대상 의견조사와 MWTV 자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차후 계획에 반영한 것 자체가 성과였으며, 정부나 정부지원단체가 아니라 소수자 미디어가 스스로 조직한 교육은 소수자의 풀뿌리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관찰결과, 기자단교육은 교육과 함께 이주민이 스스로 웹진을 통해 칼럼이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이주민의 주장들을 확산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통해 보면, 이주민 미디어 주도의 기자단교육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교육받고,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들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소통과 이해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기자단교육의 대안적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주류언론사 견학과 현장학습(A, 네팔출신/이주노동자), 인센티브 부여(H, 일본출신/결혼이주여성), 영어, 중국어 등으로 교육 진행과 더 많은 이주민의 교육 참여(E, 네팔출신/MWTV 외국인대표) 등이 제안되었다. MWTV관계자들도 이주민의 일상을 반영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 자격증 부여, 지역에서 교육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MWTV 자체 평가자료에서도 이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습교육 확대, 교통비 지급, 교육과정 중의 취재비

증액, 이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기자단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책과 운동을 필요로 하며, 이주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아래로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이주민이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를 웹진뿐 아니라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활용해 더 폭넓게 공유한다면 이주민과 주류사회 간 소통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어릴 때 문화에 대한 편견을 포함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도 소수의 적응보다는 다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서보라 · 박찬석, 2016). 이 점에서 지역의 중 · 고 · 대학의 방송반(국)과 연계해 이주민 기자단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방안, 지역학교(대학)와 이주민 미디어가 함께 다문화공개방송 또는 방송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대안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멀리서 기자단교육에 참가하면서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일인 방송을 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배경 아동의 권리 찾기 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외국인대표자회의의 구성을 이끌어낸 결혼이주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즉, 이주민의 미디어 활동은 그들의 일상의 변화와 함께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조금씩 견인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이주민이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마트폰, 스카이폰,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나라들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디지털 공동체를 형성하며 고국에서의 결혼식 등에도 실시간으로 참여한다고 한다(Hegde, 2016). 이와 유사하게 MWTV 창립기념 모임에서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토크쇼와 공개방송이 생중계되었고, 실시간으로 의견이 올라오고, 이 의견들이 소개되었다. 토크쇼 시작 때 사회자가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실시간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참여적인 소수자 운동과 미디어에 기반한 디지털 공동체의 속성을 보여주며 MWTV 활동 자체가 '관심과 참여에 근거한 공동체'(채영길 외, 2016)의 형식을 띄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주민들은 그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자단교육과 이와 연계된 취재와 기사 게재 등을 통해 이주민 공론장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 공간을 매개로 이주민 간, 이주민과 선주민 간에 상호소통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3개월 간 매주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서로 알고, 이해하면서 공동체가 구성되었고, 그들의 이슈들을 취재하고 기사화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소수자 운동에서 한국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문제가 더 다루어지며 이주민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장미경, 2005). 관찰결과, 5기 기자단교육은 교육 주도 기관과 참여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와 협업이 바탕이 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외국인대표와 상근자, 기자단교육 참여자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교육 참여자들이 주제를 선택해

기사를 게재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반면,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게 기자단교육에 대한 이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성찰도 제기되었고, 다국어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이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PR과 이주민의 시선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2017년 4월 MWTV 운영위원회를 관찰한 결과 MWTV는 현재도 후원자 수나 모금액이 부족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MWTV와 기자단교육을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들은 물론, 선주민들에게도 알려서 참여와 연대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기자단교육을 수료한 이주민들을 더 많이 연구에 참여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6년 기자단교육은 5년 만에 재개되었고 교육 수료자가 많지 않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기자단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조직에 의해 이주민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미디어교육의 사례들을 조사해 비교하는 것도 후속연구의 과제로서 유익할 것이다. 이주민이 교육과정과 교육 후 미디어 활동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며 실제로 어떻게 미디어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후속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주민이 기자단교육과정에서 작성한 뉴스나 칼럼 등을 분석해 이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주민들의 이슈와 욕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유익한 후속연구 과제가 되겠다. 이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이나 미디어 활동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꾸준히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자단교육과 같은 미디어교육이 실질적인 미디어 참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후속연구 과제가 되겠다.

참고 문헌

강진숙 (201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강진숙 · 배민영 (2010). '소수자-되기'를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노인 미디어교육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6권 1호, 255-280.

강진숙 · 박지혜 (2015). 청소년의 욕망 생성과 소수자 되기를 위한 미디어교육 사례 연구. 〈한국방송학보〉, 29권 4호, 117-148.

강진숙 · 이은비 (2010). '차이의 정체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6권 3호, 139-162.

곽효문 (2013). 다문화사회와 시민권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인권복지연구〉, 13호, 163-190.

김선미 (2011).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50권 4호, 173-190.

김진희 · 오윤호 · 이수안 (2009). 대중매체에 나타난 타자 재현 양상 연구: 2000년대 TV와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탈경계인문학〉, 3권 3호, 85-121.

김현경 (2008). 이주현상(immigration). 이기영 · 안혜영 · 이민영 · 박은숙 · 박윤숙 · 김현경 · 김선화 (편),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19-50쪽), 서울: 나눔의 집.

김현미 (2015). 귀화이주민의 문화적 권리. 〈한국문화인류학〉, 48권 1호, 89-118.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사회와 문화〉, 26집, 57-78.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권 2호, 36-71.

모경환 · 임정수 (2011).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17권 1호, 261-290.

모경환 · 최충옥 · 임현경 (2010). 다문화 교사 연수 로그램의 사례 분석. 〈시민교육연구〉, 42권 4호, 31-53.

박경환 (2008).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권 4호, 297-310.

박상준 (2014). 소수자의 차별분석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 위한 통합적 접근. 〈법과인권교육연구〉, 7권 1호, 79-105.

배현주 (2009).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 모색. 〈교육문화연구〉, 15권 1호, 139-164.

서덕희 (2012). 사회적 소수자 연구 윤리로서의 "초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직면(直面)"해야 하는 한 연구자의 성찰일지. 〈교육인류학연구〉, 15권 1호, 93-120.

서보라 · 박찬석 (2016).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6권 1호, 27-65.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 10권 2호, 41-76.

엄한진 (2008).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51권 2호, 112-140.

엄한진 (2011). 〈다문화 사회론〉. 서울: 소화.
원용진 (2001). 대중 매체 참여를 위하여: 퍼블릭 엑세스권과 커뮤니케이션권. 〈문화과학〉, 26호, 289-302.
원진숙 · 김정원 · 이인재 · 남호엽 · 박상철 · 김광수 · 류재만 (2010).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서울: 사회평론.
윤수종 (2004). 소수자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진보평론〉, 통권 20호, 179-219.
윤수종 (2008). 소수자와 교육. 〈진보평론〉, 통권 38호, 227-242.
윤재희 · 유향선 (2009).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영 · 유아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편), 〈다문화의 이해: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149-173쪽). 서울: 도서출판 경진.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한 질 연구방법론〉. 홍천: 아르.
이경희 (2015).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에 한 이해와 실천: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의 극복, '보편-창조 소수자' 되기. 〈윤리교육연구〉, 38집, 253-279.
이소영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가 다문화시민권리에 미치는 영향: 광주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권 1호, 1-28.
이용승 (2016).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권 1호, 1-25.
이은비 · 강진숙 (2013). 차이와 소수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441-468.
이창호 (2012).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일고찰: 인천 차이나타운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5권 1호, 5-32.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의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2집 6호, 159-182.
장임숙(2011). 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권 1호, 145-166.
전영평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권 3호, 9-27.
전영평 (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 서울학교 출문화원.
전경옥 (2016). 여성이주노동자 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정책. 〈다문화사회〉 연구, 9권 1호, 65-96.
정성진 (2010). 〈'다문화'와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와 '정체성 정치': 이주민 미디어활동가의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의철 (2015). 이주민의 커뮤니이션 권리와 역량강화: 이주민 미디어와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57-286.
정혜영 (2008).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통권 27호, 1-38.

채영길 (2013). 다문화사회와 상호주관적 소통권: 미디어 중심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4호, 136-175.

채영길 · 김용찬 · 백영민 · 김예란 · 김유정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2권 2호, 4-46.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6, 8). 2015년 국내 체류 외국인 특성 분석.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8월호.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통권 50호, 287-336.

Ang, I. (1996). *Living room wars: Rethining media audiences for a postmodern world.* London, UK: Routledge.

Bourdieu, P. (1998). *On television* (P. Parkhurst, Trans.). New York, NY: The New Press.

Dahan, M., & Sheffer, G. (2001). Ethnic groups and distance shrinking communication technologies. *Nationalism & Ethnic Politics, 7*, 85-107.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역) (2001).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Dutta, M. J. (2006). Theoretical approaches to entertainment education campaigns: A subaltern critique. *Health Communication, 20,* 221-231.

Georgiou, M.(2005). Diasporic media across Europe: Multicultural societies and the universalism-particularism continuu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 481-498.

Glasser, T. L., Awad, I., & Kim, J. W.(2009). The claims of multiculturalism and ournalism's promise of diversity. *Journal of Communication, 59,* 57-78.

Hall, S.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UK: Sage.

Hegde, R. S.(2016). Mediating Migration. Cambridge, UK: Polity Press.

Husband, C.(2005). Minority ethnic media as communities of practice: Professionalism and identity politics in interac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 461-479.

Kymlicka, W. (2005). *Multicutural citizenship.* Oxford, UL: Clarendon Press. 장동진 · 황민혁 · 송경호 · 변영환 (역)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울: 동명사.

Mahtani, M. (2008). Racializing the audience: Immigrant perceptions of mainstream Canadian English-language TV new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3,* 639-660.

McMahon, R. (2009). Intercultural journalism and Canadian media reform. *Media Development, 1*, 1-7.

Mitra, A. (2004). Voices of the marginalized on the Internet: Examples from a website for women of South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54,* 492-510.

Morley, D. (2000). *Home territory: Media, mobility and identity.* London, UK: Routledge.

Nesbitt-Larking, P. (2008). Dissolving the diaspora: Dialogical practice in the development of deep multiculturalism.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8*(4), 351-362.

Silva, P. D. (2009). Television, public sphere, and minorities. *Media Devepement, 56*(4), 51-55.

Silverstone, R., & Georgiou, R. (2005). Editorial Introduction: Media and minorities in multicultural Europ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 433-441.

Sreberny, A. (2005). 'Not only, but also': Mixedness and med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 443-459.

최초 투고일 2017년 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0일
논문 수정일 2017년 6월 3일

Abstract

Migrant Journalist Education's Outcomes and Alternatives as a Minority Movement

Focusing on Migrants' Raising Their Voices

Euichul Jung
Associate Professor, Sangji University

MWTV(Migrant World TV) carried out a migrant journalist education in 2016. The migrant journalist education aimed to make migrants active communication actor as civic journalist and resident journalist through collecting news, news writing as well as opinion presentation and sharing based on education processes and broadcasting participation. This research focused on not only describing but also critiquing and providing alternatives based on interviewing with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who finished the journalist education, as well as MWTV people. Findings suggest that the journaist education is a natural field of mutually understanding identities, cultures and issues based on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This 5th migrants journalist education, which resumed in 5 years, provided m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education curriculum, and horizontal education method based on a bottom up participation. For 10 weeks, experts on journalism, migration and media provided professional education and migrant participants tend to listen carefully to lectures and ask questions as well. Migrants published news or columns in the MWTV webzine and on the MWTV homepage during and after the education period. Although migrants are diverse in terms of their residential districts, occupations, ages, legal status and hometown, they build a kind of 'digital community' and 'public sphere', and communicate their various cultures and issues through this community, based on the journalist education and its related collecting news and article publication.

Keywords: migrant media, journalist education, digital community, minority media